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김갑수, 도박꾼 변신 SBS '타짜' 캐스팅

배우 김갑수<사진>가 도박꾼으로 변신한다.

KBS 2TV 대하사극 '대왕세종'에서 황희 역으로 출연중인 김갑수가 SBS 새 드라마 '타짜'에 캐스팅 됐다.

이번 드라마에서 김갑수가 맡은 역은 아귀 역. 아귀는 영화 '타짜'에서 김윤석이 맡아 주목을 끌었던 역으로 드라마 주인공 고니와 함께 대적하여 드라마를 이끄는 주연급 캐릭터다.

드라마 '타짜'는 만화가 허영만의 동명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지난 2006년 조승우, 김혜수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져 큰 흥행을 기록한 바 있다.

드라마 '타짜'는 강신효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야설록 작가가 대본을 집필하고 있다.

아동 범죄 등 사회적 이슈 다루고 3D 입체영상 제작 더욱 생생하게

뮤비의 진화

〈김장훈〉

〈장나라〉

음반시장이 장기간 불황을 겪게 되면서 가요계는 뮤직비디오를 UCC(사용자제작콘텐츠)나 스틸사진을 활용해 만들거나 아예 제작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다양한 콘텐츠로 무장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등 다시 뮤직 비디오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장훈의 두번째 싱글앨범 '소나기'는 가수 싸이가 작곡한 곡으로도 화제가 됐지만 뮤직비디오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범죄를 다루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톱스타 차승원과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차은택 감독의 조합도 화제였다.

'소나기' 뮤직비디오에서 차승원은 극중 딸아이가 납치돼 끝내 살해되는 아픔을 겪는 아버지의 슬픔과 분노를 애절한 눈물 연기로 표현해 호평을 받았다. 이 뮤직비디오 예고편이 공개되자 팬들은 "뛰어난 영상미와 스토리가 '세븐데이즈' 와 '그놈 목소리'를 연상케 하는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라며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

김장훈은 "아동 범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소재를 뮤직비디오에 담게 되었다"며 "우리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 놀 만큼 안전하고 밝은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나라는 6집 앨범이자 아시아 통합앨범인 드림 오브 아시아(Dream of Asia)의 수록곡 '점프 점프'(Jump jump)를 3D 입체영상으로 만들었다. '점프 점프'는 장나라가 팝락(Pop-Rock)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곡으로 경쾌하고 신나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3D 뮤직비디오로 제작했다. 입체 영상을 지원받는 액정이나 입체영화관처럼 특수 안경을 쓰고 보면 입체감을 느낄 수 있어 뮤직비디오를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또 가수가 자신의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솔로 활동중인 앤디는 신곡 '프러포즈'(Propose)에서 바리스타로 변신했으며, 플라이투더스카이의 멤버 브라이언은 리메이크 앨범 타이틀 곡 '취중진담'에서 신예 오연서와 연인으로 호흡을 맞춰 연기에 도전했다.

또 김동률은 지난 3월 티베트 남쪽 쿤밍과 리얀 지역에서 '출발'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출발'이 담고 있는 나른한 여행 느낌을 완벽하게 살리려고 국내가 아닌 티베트 현지 촬영을 감행한 것. 이후 김동률은 과로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톱스타가 신인 가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남자 신인 그룹 티지어스(T.G.U.S) 뮤직비디오는 '대만의 김태희'로 불리는 톱스타 장쥔닝(장균녕)과 손호영이 호흡을 맞춰 화제가 됐다.

최근 '우리 결혼했어요'(MBC)의 테마곡 '그대만이'를 부른 신인 가수 김종욱의 뮤직비디오에는 SG워너비에서 탈퇴한 채동하와 탤런트 이범수, 한은정 등이 출연했고 '인터넷 얼짱'출신인 강민경이 이끄는 다비치의 뮤직비디오 '미워도 사랑하니까' 편에는 이효리와 이미연이 출연했다.

이밖에 쌍둥이 자매 윙크의 '천생연분'은 개그맨 50명이 참여한 '블록버스터급' 개그 뮤직비디오로 화제가 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극히 현실적" SBS '조강지처클럽' 극과 극 평가 "과장 너무 심해"

"아줌마의 마음을 너무 잘 아네요" vs "말도 안되는 설정들만 있네요"

SBS TV 주말드라마 '조강지처클럽'(극본 문영남, 연출 손정현)이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찬사와 '해도 너무하는 과장'이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으며 관심을 받고 있다.

▲아줌마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사='조강지처클럽'의 고흥식 SBS 책임프로듀서는 "문영남 작가가 대 작가라는 것은 대사로 증명이 된다. 대사에는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이 리얼 타임으로 담겨있다. 특히 아줌마 주인공들의 감정 기복을 대사를 통해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길억을 연기하고 있는 손현주는 "문 작가님의 대본은 빼어나다. 특히 대사가 감동적인데 인물 별로 대사를 통해 많은 것을 전달한다"면서 "다만 그로 인해 대사량이 많은 것이 좀 힘들긴 하다"며 웃었다.

▲불륜에 접근하는 현실적 시선=나화신을 연기 중인 오현경은 "우리 드라마를 두고 과장 논란이 일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드라마보다 훨씬 심하다. 드라마는 현실의 극히 일부분만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지처클럽'의 불륜은 오히려 너무 뻔해서 식상할 정도다. 남편들은 바람기로 뚤뚤 뭉쳐있고, 바람을 피우며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뻔뻔하기 그지 없고 그 속에서 아내들은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격이나, 선정적인 냄새는 느껴지지 않는다. 작가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 불륜에 대처하는 조강지처들의 자세를 쓰다듬는다.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 쉬운 이야기='조강지처클럽'에서는 특히 안내상이 연기하는 한원수 캐릭터가 화제다. 창피한 것 모르고 천하에 개념 없는 한량인 한원수는 피가 뜨겁다.그가 버린 나화신에게는 천하의 나쁜 남자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한원수의 캐릭터를 두고 "미워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생생한 캐릭터는 쉬운 이야기 속에 녹아들며 거부감을 없앤다. 제작진은 "'조강지처클럽' 대본은 10~15분이면 읽을 정도로 쉽게 쓰여있다. 작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우리가 평소 쓰는 말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아이언맨	92만3천51	131만9천394
2	비스티 보이즈	22만3천647	39만6천91
3	테이큰	18만1천729	173만6천438
4	포비든 킹덤: 전설의 마스터를 찾아서	17만2천785	88만1천983
5	호튼	16만6천344	21만8천527
6	가루지기	8만9천997	16만979
7	명탐정 코난: 베이커가의 망령	2만7천981	3만7천223
8	버킷 리스트: 죽기전에 꼭 하고싶은 것들	1만8천794	24만7천392
9	추격자	7천107	505만8천411
10	스트리트 킹	5천75	27만1천401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미우나 고우나	KBS1	42.4
2	이산	MBC	28.9
3	조강지처 클럽	SBS	27.7
4	엄마가 뿔났다	KBS2	26.4
5	온 에어	SBS	22.7
6	아현동 마님	MBC	21.3
7	행복합니다	SBS	20.3
8	무한도전	MBC	18.8
9	해피투게더	KBS2	18.5
10	KBS 뉴스 9	KBS1	18.1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드라마
2	나는 전설이다	스릴러
3	워	액션
4	황금나침반	판타지
5	명장	액션
6	미스트	SF
7	식객	드라마
8	무방비도시	액션
9	세븐데이즈	스릴러
10	더 게임	스릴러

〈자료제공:비디오코리아〉

가 요

순위	제 목	가 수
1	서커스	MC 몽
2	One	에픽 하이
3	우산	에픽 하이
4	라라라	SG 워너비
5	가슴으로 외쳐	먼데이키즈
6	아이처럼	김동률
7	미안해요	거미
8	발자국	먼데이키즈
9	다 줄꺼야	이승기
10	기억을 걷는 시간	넬 (Nell)

〈자료제공:멜론〉